



# 국내 특수인쇄업계의 독보적 기술수준 확보

국내 포장산업 세계화에 선두 역할 다짐

언제나 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지않은 사람들이 '포장을 싸개의 개념으로 보던 때가 있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단편적인 인식만을 하던 때에 비한다면 현재는 포장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끔 이러한 비교가 어찌면 자족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소비자와 경영자들이 포장에 대한 인식개선이 진척되고 있다고들 하고, 포장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여전히 포장은 2차 산업이며 쓸데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이미지가 대중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포장인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단계 올라선 선진포장의 완성도를 구축하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무던히 넘어서고 있음에 큰 희망을 가져본다.

국내에 아직도 쉽지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는 특수인쇄의 선진업체인 은성정밀인쇄(주) 또한 이러한 희망의 한 획이다.

포장에 대한 큰 발전이 없었던 1970년대 중반, 은성정밀인쇄(주)는 특수인쇄라는 어찌 보면 조금은 위험스러운 시작을 감행한다.

“일반 포장과 차별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사용



◀은성정밀인쇄(주) 김국 대표이사

되는 원자재로부터 시작해 인쇄방법, 인쇄상의 공정 등 모두 저희 은성정밀인쇄가 개척해야 했습니다”라고 초창기를 회고하는 김국 사장은 그러한 어려운 시작으로부터 23년여가 지난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적된 기술과 앞선 설비, 그리고 능숙한 노하우로 은성정밀인쇄(주)의 저력이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은성정밀인쇄(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디자인부터 시작해 완성된 포장물이 나오기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일단 저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완성해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김 사장의 설명에 덧붙여 한 디자인에 맞춰 10가지 이상의 시안을 제시하므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은성정밀인쇄(주)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은성정밀인쇄



▲은성정밀인쇄(주)에서 특수인쇄기법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군.

(주)의 노하우이다.

은성정밀인쇄(주)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고급상품일 수밖에 없는데 화장품케이스나 위스키 케이스, 의약품 포장 및 제과포장, 식품세트 등이 그 주 품목이다.

“화장품이나 양주, 의약품의 경우 상품 자체가 고급이기 때문에 고급포장이 무난히 적용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김 사장은 양주는 수입품의 경우도 외포장상자를 은성정밀인쇄(주)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때, 초컬릿 시장이 커지면서 초컬릿 포장에도 특수인쇄를 적용했다고 덧붙이는 김 사장은 은성정밀인쇄(주)에서 특수인쇄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에서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며 자랑스러운 웃음을 내보이기도 했다.

“제과분야의 경우 앞으로는 그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워낙 마진이 적은 품목이라 특정 상품 외에는 널리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라는 김 사장은 이에 대비해 양주와 화장품 등 기존 제품은 물론 각종 라벨분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80년대 초 일본의 상육(上六)인쇄에서 화장품 포장상자를 본 김 사장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은 정교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기억을 되짚었다.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포장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를 느끼게 했던 그 감동을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라는 김 사장은 당시 상육인쇄에서 생산하던 포장이 일반 포장보다 6배 이상의 고가였음에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고 전했다.

상육인쇄에서의 깊은 인상을 계기로 김 사장은 국내 최초로 고급포장을 선보이게 되는데 은성정밀인쇄(주)가 지금까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매진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인 셈이다.

일반인쇄의 경우 오프셋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광택이 없는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은성정밀인쇄(주)의 인쇄의 경우 오프셋, 실크스크린, 동판, UV, 금박인쇄 등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인쇄를 하기 때문에 색상과 인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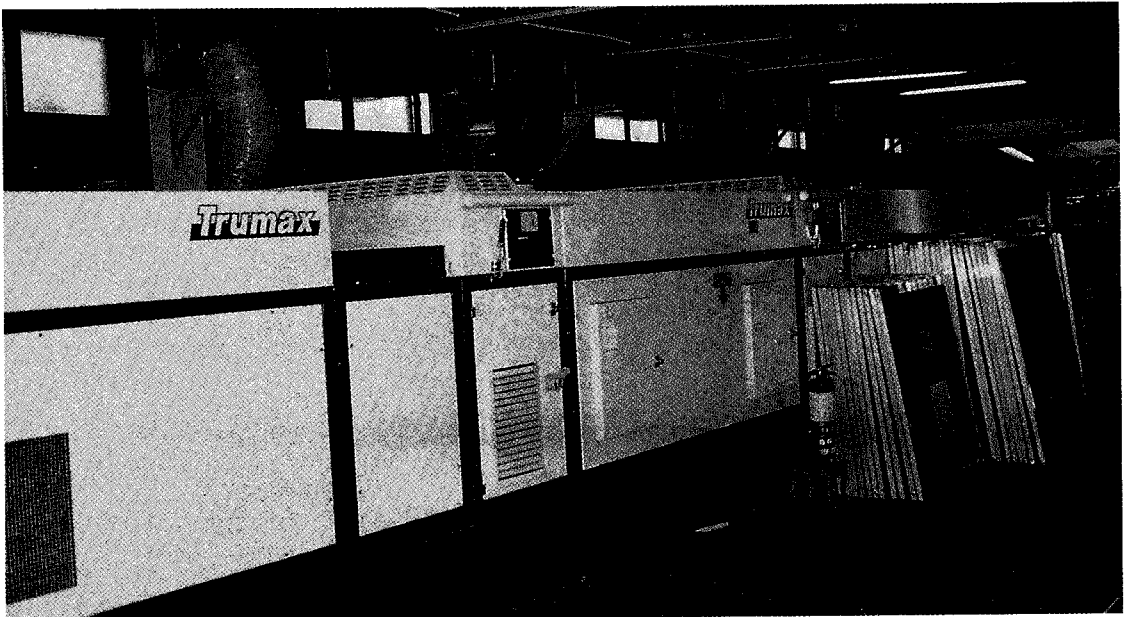
즉 진한 색상은 실크스크린으로, 맑은 색의 경우에는 오프셋인쇄를 통해 구현하게 되고 엠보싱은 동판인쇄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인쇄물의 핀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은성정밀인쇄(주)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로스율을 최소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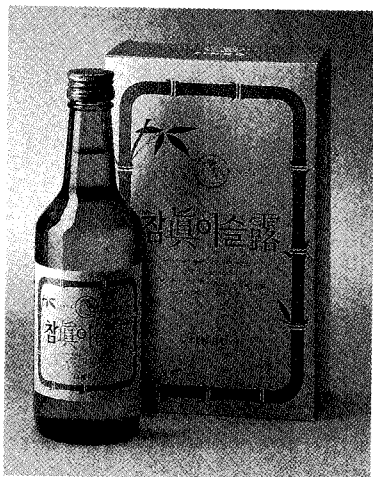
또한 특수인쇄의 경우 금속성 위에 인쇄하게 되므로 납품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조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은성정밀인쇄(주)는 특수인쇄용 잉크와 종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또 한번 특수인쇄의 신기원을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는 적지않게 들었지만, 국내 특수인쇄분야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한편, 은성정밀인쇄(주)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한 셈이다.

모든 기업에 큰 시련을 주었던 IMF는 은성정밀인쇄(주)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 김 사장은 이러한 난제를 수출판로 개척이라



▲ 국내에서 은성정밀인쇄(주)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크스크린 인쇄기. 인쇄부터 완전건조까지 전과정을 한 기계에서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은성정밀인쇄(주)가 최근 개발한 참이슬제품의 라벨. 특수인쇄로 본 색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인쇄기술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는 새로운 도전으로 풀어가고 있다.

“지난 해 중국에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포장의 수준, 특히 특수인쇄의 수준이 아직 미흡해 그 시장성이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김 사장은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모를 늘려가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있다.

대 중국 수출의 관세가 52%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 공장 설비를 갖출 경우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하청업체에서 맡아야 할 부분까지 투자할 수밖에 없어 인원과 비용면에서 너무 막대한 규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와 약품류의 디자인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격은 충분히 받았지만 관세가 턱없이 비싸 큰 이윤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김 사장의 설명에서 적용받는 자보다 적용하는 자에 우선한 또 하나의 정책을 보는 듯했다.

은성정밀인쇄(주)는 중국수출에서 느낀 답답함에 대해 관세가 적은 몽고에 주류 라벨과 케이스

수출로 숨통을 트고 있는데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수출이라면 좀 더 많은 기업이 수출에 적극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내 유일의 특수인쇄 업체인만큼 작업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은성정밀인쇄(주)는 후생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므로써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게 하고 애사심과 단결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내가 속한 직장에 대한 사명감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첫 기반이라는 생각을 가진 김국 사장이 회사한 1억원으로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우회는 직원가족의 생일과 경조사는 물론 입사 5년차 직원에게는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해외로 함께 가는 등 가족적인 회사 분위기 형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사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수환 상무이사는 “IMF 이후 지속하는 의미에서 해외여행은 삼가고 있으나 기본적인 활동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은성정밀인쇄(주)와 변함없이 함께 넘기고 있는 직원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며 사우회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 유일의 특수인쇄 업체라는 자부심과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가는 특수인쇄업체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은성정밀인쇄(주)가 가진 저력으로 국내 포장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세계화로 가는 걸음에 빠르기가 더해질 것을 확신한다. ☐

윤지는 기자